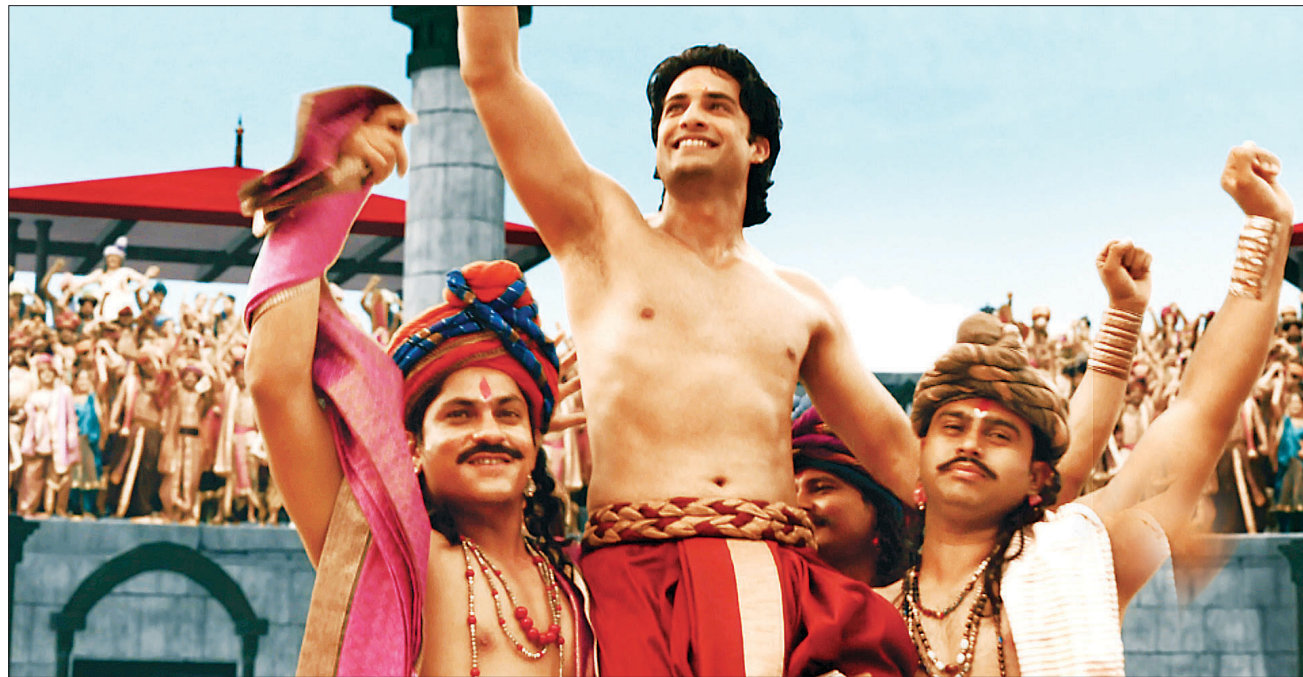


BTN 드라마 '붓다'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지난 줄거리

끊임없이 카필라바스투 왕국의 왕 자리를 탐내는 드로나단 부부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왕자 시타르타가 탄생한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왕비 마하마야는 왕자를 낳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 스도다나 왕은 왕자를 용감한 전사로 키우고자 한다. 하지만 어느날 왕 앞에 나타난 아시아 성인은 왕자가 성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를 부정하고 싶은 왕, 하지만 왕자는 자비의 마음을 내며 세상을 대한다. 또한 분노로 가득 찬 사촌 데바닷타와 변변이 갈등을 겪는데...



왕자 시타르타는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왕은 걱정하며 왕자의 스승 카운다나에게 왕자를 무사로 길러낼 것을 당부한다. 주변의 독려 끝에 검 시험에서 승리를 거둔 시타르타의 모습.



누명을 쓴 고리를 의심하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시타르타



형 데바닷타와의 갈등을 피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스승과 명상하는 시타르타(사진 왼쪽).



십년만에 시타르타 왕자를 다시 만난 야소다라의 모습

한 남자가 궁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는 왕이 만든 신도시로 옮겨간 백성이었다. “폐하는 저희 마을을 빼앗으시더니 이제는 저희를 다 죽이려 하십니다.” 남자의 말에 놀란 왕은 이렇게 되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나? 내가 백성들을 신도시로 보낸 것은 병자는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받고 그렇게 모두가 다 좋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너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모두에게 주었다.”

“지금 신도시에 곡식이 한 톨도 없어 다 굶어죽어 가고 있으며, 기아와 죽음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남자는 쓰러지고 만다. 이 광경을 본 시타르타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쓰러지고냐고 묻는다. 술에 취해서 쓰러졌다고 대중 둘러댄 파자파티는 “살의 어떤 문제는 나이가 들어야만 이해하게 된다”라는 조언을 덧붙인다.

이 과정에서 바이사 고리가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누군가 왕을 사칭해 곡식을 보내지 말라는 고지를 보냈고 그는 이것이 왕의 명령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예전 재판에서 시타르타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착하게 살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죄를 짓게 된 고리는 왕국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고리는 시타르타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시타르타는 고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리나”라고.

왕자 시타르타는 침착성이 대단하고 음악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며 무용도 잘한다. 또한 왕자는 말보다는 눈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지만 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왕은 걱정하며 왕자의 스승 카운다나에게 왕자를 무사로 길러낼 것을 당부한다.

데바닷타는 불가촉천민 지역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 스승 카운다나는 이런 데바닷타를 나무라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충고한다. 시타르타는 데바닷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슬픔에 빠져 나무 아래 홀로 명상을 한다. 스승 카운다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한다. “분노는 불과 같다. 그리고 명상은 물과 같다. 분노는 정신력을 파괴하지만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세요.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시타르타와 데바닷타가 등장한다. 활 시험에서 데바닷타는 두 마리의 새를 동시에 떨어트리며 용맹을 펼친다. 하지만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시타르타에게 데바닷타는 이렇게 얘기한다.

“전쟁에서는 점이나 공기에 화살을 쏘지 않는다. 아우야, 크샤트리아는 전장에서 살고 죽음을 좌지우지한다. 네가 날아가는 새를 쏘지 못하면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에 시타르타는 팔찌의 구슬을 하늘 위로 날려 두 동강이를 내면서 뛰어난 활실력을 보여준다. 이후 둘은 검대결을 통해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하는 시험을 보인다. 데바닷타는 이 시험에서 시타르타를 없애 버릴 결심을 한다. 가면을 쓰고 시험에 임하는 경기에서 시타르타가 붉은 가면을 쓰고 나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드디어 검 시험이 열리는 날! 데바닷타는 붉은 가면을 무사 시타르타임을 확인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었고 이어 시타르타와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시타르타는 데바닷타를 공격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 그리고 왜 피하기만 하느냐는 스승과 데바닷타의 비난에 결국 몇 번의 공격을 가하고 데바닷타의 혈 자리를 눌러 잠깐 기절 시키는 것으로 시험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이 시험을 구경하러 온 야소다라와 시타르타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BTN Buddhist True Network | 드라마 '붓다'를 1회부터 12회까지 시청할 수 있는 붓다데이를 진행합니다.

7월 15일(수) 밤 9시 · 18일(토) 새벽 1시: 1~3회
7월 16일(목) 밤 9시 · 19일(일) 새벽 1시: 4~6회
7월 22일(수) 밤 9시 · 25일(토) 새벽 1시: 7~9회
7월 23일(목) 밤 9시 · 26일(일) 새벽 1시: 10~12회

리뷰 - 법현 스님이 본 드라마 '붓다'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전해져

늘 뭔가 헛헛했다. “우리나라는 얼음판의 얼음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렇게만 여기다가 김연아라는 걸출한 선수가 나오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런 소리는 이제 속 떨어졌다. 비슷한 느낌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다.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예수의 삶과 그 주변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볼 때마다 어찌 이리도 아름답게 그리는지 궁금하고 부러웠다. 부처님 이야기도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흥미진진하게 그럴 수 없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 섞인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인도 드라마 붓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기쁨을 맛보았다.

불교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방영된 붓다의 삶은 정말로 흥미진진했다. 영화를 넘어서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라서 매 회마다 가져야 하는 긴장미를 적정하게 편성한 재미가 있었다. 아니 매회 한 편의 영화였다. 그동안 보아왔던 인도영화의 특성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도영화는 세 열간이, 조다 악바르, 볼베이, 용감한 자가 신부를 얻는다, 우리가 만났을 때 등 이십여 편을 넘지 않는다. 그것은 할리우드 영화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온 극장가의 흐름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들 인도영화는 대개 슬기로우음을 강조하고, 슬기로우음을 존재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불교와 힌두교 등 인도의 사상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거기다가 경쾌한 노래와 춤들을 삽입하여 쉽게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 여배우의 눈빛과 몸매가 관람자들의 마음을 흔들여 놓는다.

드라마 붓다에서도 인도영화의 특징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부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살펴봐도 흥미진진한

인도 영화 특징 살린 드라마 자비의 시타르타 행보 기대

데바닷타와 시타르타를 둘러싼 갈등 소재를 잘 다루었다. 특히 데바닷타의 어머니 망갈라와 시타르타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 파자파티의 갈등구조는 드라마의 전형이다. 이! 스도다나와 망갈라가 연인사이였다는 사실, 마하마야가 죽고 나서 왕비가 된 줄 알았는데 마야의 부탁으로 미리 제2마녀가 되었다는 것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드라마를 흥미롭게 보게 한다.

게다가 마가다, 바이살리 등 16국에 둘러싸여있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크샤트리아로서 당연하게 왕위를 이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스도다나왕과 그의 동생인 드로나단의 물고 물리는 이야기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심지어는 드로나단과 망갈라의 아들인 데바닷타가 왕위를 물려받으려면 스도다나의 아들이 태어나서는 곤란하므로 임신한 마하마야왕비의 음식을 독을 넣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 물론, 위기의 순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지만... 망갈라의 독백이 화면에 지나간다. “시타르타에게 수행자의 물병을 쥐어주지 못한다면 내 이름이 망갈라가 아니다.” 시타르타가 수행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왕위가 데바닷타에게 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도 시타르타는 꾸준히 존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간다. 어린 나이 때부터 좋지 않은 것을 보지 않게 하려는 스도다나의 욕심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마음으로 느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나 화살에 맞고 신음하는 백조를 치료해서 목숨을 살리는 모습은 가슴을 울린다. 시타르타는 쏘아서 죽인 사람이 주인이라는 데바닷타에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말 가운데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의 불교공부에서 나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시타르타의 존재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드라마의 흥미를 이어갈 지도 관련 포인트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동의 소재이지만 스도다나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며, 데바닷타나 망갈라의 입장에서 시타르타의 위크포인트(약점)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 BTN 자원위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宗團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高僧長老團, 世界佛敎考試委員會, 大韓佛敎大宗師聯合協議會, 韓國佛敎元老長老團, 韓國佛敎나라사랑聯合協議會, 韓國佛敎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011-229-6061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했기에 모든 직무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